

고 이성적인 분위기를 위해서도 참선 문화가 보편화되었으면 합니다.

▲구산스님은 항상 강조하셨어요. "자네 늘 참선하게, 참선하면 목에다 칼을 갖다대도 눈 꿈쩍도 안 해, 그렇게 정신력이 강해져." 하셨습니다. 구산스님이 50년대 정화때 서울 가서 열서만 6백장 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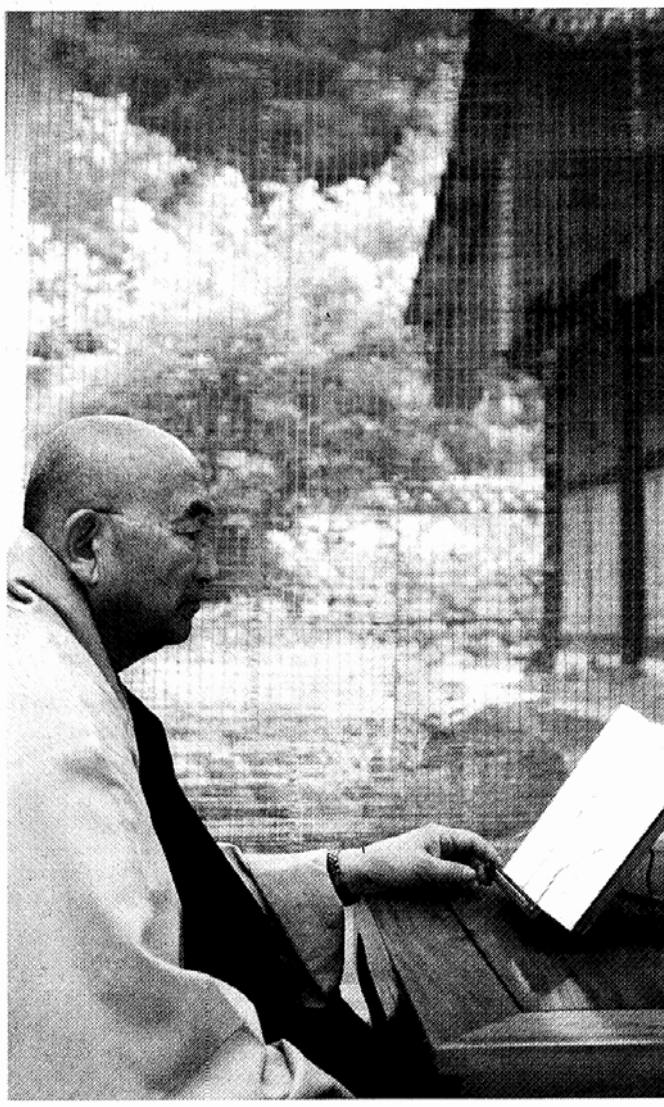
요즘같이 경박하고 급변하는 시대일 수록 참선으로 자신을 닦아나가야 중심이 잡히고 주관을 뚜렷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 번뇌를 끊어서 이 마음을 깨쳐 부처되는 방편중 가장 빠른 길이 참선입니다. 다생겁래 업장습기를 녹이기 위해서는 보통 노력 가지고는 안돼요. 뼈를 깎는 고행을 해야 합니다.

—일체가 내 마음의 산물이라 했습니다. 존재 방법의 근원이 마음이라 했는데 마음은 내 것이지만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도를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하는 마음을 닦고, 쓰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불자들이나 일반인들이 흔히 절에 가 볼 수 있는 벽화가 '십우도(十牛圖)'입니다. 도 깨치는 단계를 10단계로 나누어 그림으로 쉽게 설명한 것인

우(牧牛), 이제는 소가 스스로 사람을 따릅니다. 화두가 되는 것, 이른바 득력이 생긴 겁니다. 한국스님들 여기까지 가면 방장 할 수 있는거요. 다음이 기우귀가(騎牛歸家), 흰소를 타고 피리를 불고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망우존인(忘牛存人)에서는 소는 없고 사람만 있어, 강물을 건너갈 때 배가 필요하지만 강물 건너면 배가 필요없어, 견성을 하기 위해서 화두가 필요하지만 깨친 뒤에는 화두가 필요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인우구망(人牛俱忘), 여기가 여행의 목적지, 처음출발한 때의 목적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칠지보살이라고 하지요. 여기에 이르면 신통력이 나오고 입이 붙지 못해, 모든 일이 무심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입이 붙지 못해요. 깨치고 보니까 우주자연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지요. 여기가 성철스님이 말한 '산은 산물은 물'의 경지지요.

내게 고조할아버지될 되는 용학스님은 그러한 단계에 든 분입니다. 3년후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 나이 3년후엔 80인데 부처님이 80에 돌아가셨으니까 부처님보다 더 살 것도 없고 덜 살 것도 없고 부처님처럼 2월



◇용학스님은 내생에도 또 비구 몸 받고 부처님 법 만나 공부 절해 성불하게 해 달라고 원을 세워 기도하신다고.

필요도 없고 오늘 갑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날 바로 열반에 드셨어요.

어떤 학인이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니 석상대선스님이 대변에 답하기를 "불날에 닭우는 소리가 불법이다." 학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재차 답변이 "가늘게 개짖는 소리가 불법이다." 무슨 소리인지 영증하고 알송달송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화두로 삼아 치열하게 탐구해 보세요. 물도 마셔본 사람이 뜨겁고 찬 것을 아는 것처럼 그 경지를 스스로 공부해야 체득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학인이 조주스님에게 여주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물으니 너 진짜 부처를 묻느냐, 가짜 부처를 묻느냐. 학인이 다시 부처에도 진짜 부처와 가짜 부처가 있습니까 물으니, 부처에도 진짜 부처와 가짜 부처가 있다. 삼세제불과 역대조사는 가짜 부처이고 내가 진짜 부처다. 내가 눈으로 물건을 볼 수 있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있고 혀로 쓴 맛 단 맛을 볼 수 있고 바늘로 몸을 찔렀을 때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이 내 부처의 성품 아니냐 했어요. 절에 가 후 '십우도'를 보게되면 자신의 수행 과정과 비교해 보아 단계단계 오를 수 있도록 부단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스님은 평소, 다음 생에도 비구 몸 받고 부처님법 만나 공부 잘하게 해 달라는 원을 세우고 기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금강경의 한 구절만 듣고도 금방 깨치신 육조스님 같은 분은 고불(古佛)의 후신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몇십년 닦아야 됩니다. 그래 공생에 안되니까 내생에 또 수행자로 태어나 정진하겠다고 원을 세우는 것이지요. 내 나이 지금 칠십인데 허리 꼬부라지고 참선하기 힘들니까 재발 내생에도 또 중으로 태어나 가지고 부처님법 만나서 성불하게 해 달라고 원을 세워 기도합니다.

우주생명의 원동력을 법성의 당체라 합니다. 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불성이고 자성이고 진여라고도 하는 이것을 보려면 다생겁래의 번뇌를 녹일 수 있어야 하니 정진 또 정진하십시오.

스님이 되어 절법만 축내고 깨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 놓은 것 없으면 그것처럼 후회되고 한탄스러운 일이 없지요.

대담=이경숙 부장 (gstee@buddhapia.com) 사진=고영태 기자 (ybgo@buddhapia.com)

지옥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정스님 ③

스님의 필치는 물 흐르듯이 유연하고 능숙하시다. 나는 편지를 받아보고 글을 쓴 이의 체격과 성격을 판단함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듯한데, 글씨 모양에 따라 신장이 드러나는 것 같다. 키가 훌쩍 큰 이는 의외로 깨알같이 작은 글씨를 쓰고 반대로 키가 작은 이는 큼직하게 글씨를 쓴다.

또한 한 분야에 일가를 이룬 대가(大家)의 글씨는 유연하다. 말하자면 법정스님의 필치도 여기에 속한다. 스님은 대체로 작은 글씨를 유연하게 쓰신다. 이런 글씨를 받아보는 이는 평생 잊지 못하는 듯 하다. 그래서 스님의 옥서(玉書)에 사인을 받으려고,

"스님, 한 말씀 써 주세요." 할 때에는, '한 말씀' 하고 쓰신다. 붓을 들고 가서는 점 하나라도 좋으니 짙어 달라고 조르면서 종이와 붓을 준비해 가면, 정말 '점 하나' 만을 찍고 멈추신다. 또 어떤 육적이 좋은 노 보살이 불명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올리니 즉석에서 이렇게 작명을 하신다. "우랑모(優良母) 보살!"

"스님 한 말씀 써주세요" '한 말씀' 이라고 쓰신다

체격이 특이한 아이의 특이한 어머니로 적합하기에 '우랑모'로 지으신 것이다. 한번은 열서 한 장을 보냈는데 그 열서를 받은 보살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하였다고.

"부탁이 있소. 내 위패 옆에는 큰스님이 친필로 써서 보내주시는 열서를 놓아오."

스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부터 다른 이의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쓸 때 더욱 조심스러워 졌다고 하신다.

외국여행을 하실 때에 합장주나 조그만 기념품을 챙겨서 간혹 나눠 드리는 일도 스님의 심경 변화가 있는 이후의 일이다. 특히 인도 여행에서 불자들을 만날 때에 나눠준 조그마한 보시품이 받는 이에게 마음의 큰 선물로 오래 기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함께 모시고 떠났을 때의 일화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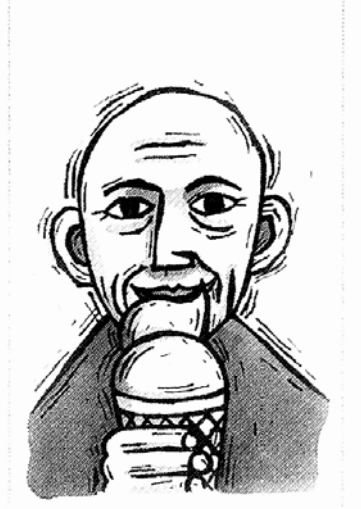
휴게소가 가까워 졌을 때였다. 스님이 말씀을 꺼내신다. "지옥 수좌, 초콜렛 먹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영문을 모르고 대답한다. "아니요, 먹고 싶지 않아요." 또 스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스님이 잡수시고 싶을 때에 물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흔연히 대답한다. "네에, 먹구 싶어요." 이러한 스님은 사오라고 해서 함께 잡

수신다. 옛이야기에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누가 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나서서 이런 말을 먼저 하였다고 한다. "동서, 노래해."

하고 옆의 동서 열구리를 짚어버렸다. 마을에서는 할아버지가 떡을 자시고 있을 때에,

"애들아, 너희들 떡 먹고 싶지 않냐?" 하고 괜히 손자들에게 물으신다. 이게 옛날 어른신네가 짐작하게 처신하는 방법의 하나였다. 어른신이 체신 머리 없이,

"무엇 무엇이 먹구 싶다." 하지는 않았는데 은근하면서도 짐작은 표현법이다.



그림·문병성

또 하나 재미있는 일이 있다. 불일암에서 공양주로 지낼 때였다. 객이 와 있을 때에 저녁밥을 지을지 말지 망설여진다. 차를 마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객은 떠나지 않고 해서 어떻게 싶어 스님의 눈과 마주 친다. 이때였다. 스님은 정말 잔광석처럼 눈치를 번쩍 채고 한 말씀을 하신다.

"여기, 오늘밤에 달이 뜨면 달맞이꽃이 보기 좋아." 이 말씀은 객이 저녁을 드신다는 사인이다.

"가만있자. 불일암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이 말씀은 객을 보고 묻고 있지만 실은 공양주에게,

"이 작은 골 내려 갈까요?" 하는 말씀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 30~40분 걸렸어요."

하고 객이 차를 훌쩍 마시고 떠날 준비를 한다. 그래도 객이 눈치가 없을 때에는,

"큰 절로 내려가는 길에 이 책을 잊지 말고 가져가." 한다거나 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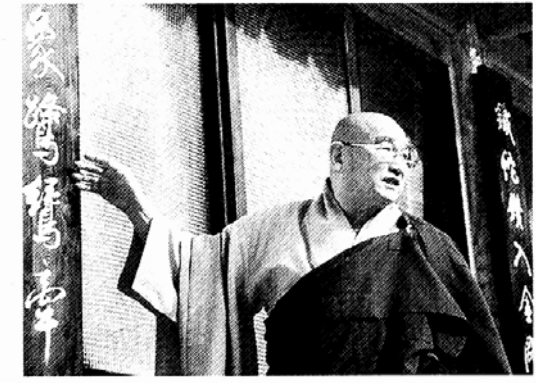
"아, 주차장까지 30~40분 걸리지요?" 하며 떠나는 이야기로 계속 화제를 삼는다. 나는 이런 대화를 통해 금방 알 수가 있었다.

"남탓 말고 주관 뚜렷하게 처신 십우도 단계처럼 부단히 정진"

데 이 십우도처럼만 마음을 다스린다면 깨침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처음 공부 시작하는 단계를 십우(尋牛)라 그래요. 소 찾으러 나서는 것, 발심 단계지요. 그 다음이 견적(見跡), 소 발자국을 보는 것, 계율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참선해 소가 숨어있는 것을 보는 단계지요. 그리고 견우(見牛), 뜬오점수에서는 소를 보았다고, 즉 깨쳤다고 다생겁래 습기가 다 녹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보림공부를 더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초입단계에서는 소를 잡아끌어도 소가 안 따라 올리고 해, 아직 번뇌망상이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공부 가 덜 된 것이지요. 소가 말을 안 듣잖아. 득우(得牛)단계지요. 아직 번뇌가 남은 것, 소가 도망가려고 하고 말을 안 들어요. 번뇌가 조복되지 않고 생각이 자주 다른 데로 달아난다는 것이지, 다음이 목

보림에 들어가겠다". 안변 석왕사에서 66세에 통도사로 오는데 그 전날 주지가 꿈을 꾸는데 절의 신장님이 "내일 저녁 큰 스님이 한분 오니까 마중나가라" 하더라요. 다음날 적멸보궁에 가니까 정말 한 노스님이 적멸보궁에서 절하고 있더라요. 1917년 돌아가셨는데, 그날 아침에 그 스님이 생생하게 돌아다니니까 남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 노장님은 돌아간다니니 뭘 돌아가 흥을 봤어. 노장님이 아침에 공양하시더니 머리 삭발하고 목욕하고 새 옷 갈아 입고 저녁 되니 열반종을 미리 치르고 하더라요. 자신만만하거든. 원래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열반종을 치게 돼 있었어요. 용학스님이 돌아가시는데, 용학스님을 봐야겠다고 천여명 대중이 모였어요. 스님이 법상에 앉아 "오늘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2월 보름이고, 내 나이 부처님 나이가 됐으니 더 살



◇절저한 수행으로 다생겁래 익힌 습기를 녹여야 자성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하시는 법흥스님.

'풀씨파종 자원봉사자 긴급모집' -강원도 산불파해지역 장마대비 풀씨 파종-
◆ 파종장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 일 시 : 1차 - 2000년 6월 6일(화) 2차 - 2000년 6월 18일(일)
◆ 파종방법 : 지표파종
◆ 기대효과 : ① 장마대비 토양유실 방지 및 수질혼탁방지 ② 생태계복원
▶ 행사동참방법 (풀씨 파종 자원봉사자)
◆ 집결일시 : 1차 - 2000년 6월 6일(화) 오전 6시 30분 2차 - 2000년 6월 18일(일) 오전 6시 30분 (서울도착예정시간 : 오후 8시)
◆ 집결장소 : 조계사 앞(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승차)
◆ 준비물 : 각자 도시락 및 면장갑
◆ 풀씨를 뿌리는 시령들께는 녹색보리수 뿌지중정
◆ 신청 및 접수 :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중앙사무국 (T. 723-6258) (신청자는 미리 불자연 사무국으로 연락바람)
▶ 풀씨 후원방법
◆ 후원 할 풀씨 종류 : 안고초, 참사리, 솔새, 비수리 (토종풀씨)
◆ 후원금액 : 5,000원(1인당 풀씨 1봉지(250g) 5,000원은 현저시세에 준함)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6-01-0398-323 예금주 자비불사 -생명의 풀씨 나누기-
문의전화
불교자원봉사연합회 T.02)723-6258
Buddhist Volunteer Association F.02)723-6257

2000년 제 1기 達摩禪法
자감(自感) 영통법사 교육 (전국지역부처회 모집)
道理는 相生이며 道術은 弘益이니 達摩禪法으로 도를 覺하고 五行變化로 도리를 究하며 千手觀音으로 도술을 得함이 三尊修行이라 古往今來 병을 몰리치고 마귀를 쫓으며 화를 피하고 복을 부르는 治方을 수행의 요체라 하니 靈動神氣와 神明自感이라. -白常 禪師-
[특점]
연수 및 분기별 교육예정
각 과정 수료시 지도법사 자격증 수여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해의 법사 위촉 및 해의 활동지원
각 지역 지부장 위촉 교육지도 할수 있음
본연합 연대사업 적극 지원
장묘문화(화장, 납골) 사업
민박-세계관광 연대 사업
각종 사찰 봉사사업 지원
[해외지원]
CIOI 중국(장백, 연길) JIOI 일본(도쿄, 하카다)CAIOI캐나다(알브타)
[국내지부처회(대모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인천, 춘천, 전주, 울산, 마산, 포항, 경주, 청주, 대도시 및 소도시
◆ 접수 방법 : 이력서(사진첨부), 간단한 자기소개서 우편접수 및 팩스로 접수 하여야함
◆ 기 간 : 2000 수시 접수 가능함 (1차 2000.6.20까지)
◆ 1차교육수료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150042-52-200478 예금주 이 민택
※ 이력서 : 자기소개서,교육 수료비,입금표 접수한 분에 한하여 면접 상담 후 지역 지부장으로 추대코저함
세계 상생운동연합 ioi 달미선원 세계원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13-1(2층)
전화 053)982-4976 팩스 053)983-9223

왕토 흙벽돌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x14x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왕토마을
왕토마을에서는
봉송왕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